

2011년 10월

기도하는 사람이며 기도의 스승인 굴리엘모 요셉 샤미나드를 계속해서 따르기

기도하는 사람 요셉 샤미나드

젊은 시절부터...

뮤시당 신학교 시절, 아직은 어린나이인(10세) 굴리엘모는 예수회 신부였던 그의 형 세레자요한이 어느 피정 중에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형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청한다. 굴리엘모는 일반적으로 첫 영성체를 하는 나이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첫 영성체를 했는데, 그 때 이미 그가 성체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드러났으며, 페리그에서처럼 뮤시당에서도 그분의 모든 기도는 마리아에 대한 강한 신심으로 가득 찼다. 15세가 되었을 때, 성 까를로스 수도회에서 개별서원을 했고, 그 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뮤시당에서 학교 재정담당자로 일을 한다. 사도직안에서도 그의 깊은 영성은 항상 드러났다.

...혁명기간 동안...

1791년 뮤시당을 떠나야만 했으며, 보르도에서는 비밀리에 사제직을 수행해야 했다. 그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제들의(성직자법에 서명하지 않은 사제들) 영적동반자 역할을 했으며, 모든 성사집행을 비밀리에 계속했다.



...사라고사에서...

1797년 샤미나드 신부는 사라고사로 망명을 가야만했다. 그에게 있어 이 망명기간은 사막에서의 생활과 비슷했으며, 영적인 삶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는 기간 이었다. 기둥의 성모님 발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

라무르즈양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자신이 준비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영혼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뜻을 포기할 때 우리는 또한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편지15, 1799.3.2)

...그리고 보르도에서.

프랑스의 재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이 지칠 줄 모르는 선교사 샤미나드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아델뜨랑펠레옹은 그녀의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샤미나드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신부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항상 감정을 자제하시지만, 많은 일들을 해 내십니다. 바로 은총이 당신 안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편지409.6 1820.10.12)

샤미나드 신부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깊이 숙고하는 사람, 모든 것을 기도 안으로 가져가는 사람, 단지 자신이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1844년 10월에 쓴 어느 편지에서 그의 이러한 태도들이 잘 드러난다. 이 편지는 샤미나드 신부와 평의원들 사이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샤미나드 신부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 부분이다.

“나는 아주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또 쓰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쓰는 것입니다.”(편지 1344, 1844.10.12)

기도의 스승인 샤미나드 신부

샤미나드 신부는 그의 모든 삶 안에서, 즉 1800년 이후 평신도 그룹을 형성 했을 때부터 당신 삶을 마칠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양성을 시켰다. 그들에게 당신 고유의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마치 수도생활을 하는 이들을 양성** 시키는 듯했다.

- ✓ 자신의 성화에 힘쓰기,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진정한 관계 안에서 성장하기.
- ✓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기,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
- ✓ 몸을 잘 보호하기, 다시 말해서, 영,육간의 일치된 생활.

그분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며, 영,육간의 일치된 생활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했다.

기도의 방법들...

보르도에 있는 회원들에게 체계적인 기도방법을 가르치고, 수도회 창립 이후 “덕행의 체계”라고 불려질 침묵의 실행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안에서 늘 기도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1828년, 믿음과 하느님 현존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 기도방법은 더운 완전하게 되었다.

1832년, 샤미나드신부는 “변화”에 대해 거듭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분의 기도 방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변화)이며, 낡은 인간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회개(변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분이 영적 지도자로서 추구하고자 했던 기도 방법은 1840년에 가르쳤던 기도방법에서 잘 드러났으며 이것은 기도방법중의 하나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마음은 곧 믿음이며, 이 믿음은 우리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삶의 유일한 인도자 이기 때문이다.



기동의 성모학교에 있는 샤미나드 상 (사라고사)

...우리의 꿈들을 간직하면서...

덕행의 체계는 기도와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편지를 살펴보자. 이 편지는 갈멜 수도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러나 자신의 성소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던 Sr. Celestina 에게 샤미나드 신부가 보낸 편지인데, 갈멜 수도회와 마리아의 딸 수도회가 어떻게 다른지 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마리아의 딸 수도회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고 그 분과 일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길을 밝혀 주고 있는 반면, 성녀 대 데레사의 개혁 갈멜 수도회는, 지극히 개인적인 길을 안내하는데 그것은, 창조물 각 개인에게 다가오시고 대화하시는 하느님을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수도회 안에서 당신은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수도회의 목적, 완전성, 거룩함 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딸 수도회 안에서는 장시간 동안 해야 하는 기도는 없지만, 반면에 정신적인 집중과 침묵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 갈멜 수도회는 장시간 이어지는 성무일도, 묵상기도, 고독, 등 이 있습니다.

이 두 수도회 모두는 성령을 통한 거룩한 계획들을 지니고 있기에 서로 모순된 수도회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딸 수도회에서는 개인성화는 타인의 성화를 위해 일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본다면, 개혁 갈멜 수도회에서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종교의 유용성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견고한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편지 142, 1820.7.11)

우리의 생활 규칙에 따르면, 하루의 일과 안에 장시간의 묵상시간은 없지만 한 시간의 기도를(묵상기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개(변화)의 중요성, 정신집중과 침묵의 덕들, 이것은 샤미나드 신부가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선교사이며 수도자들인 우리의 기도에서 드러나야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삶 안에서 말씀을 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는 처음부터 이러한 안목(기도하는 삶, 침묵)들을 지닌 분이다. 믿음의 여인인 그녀는 일상생활 안에서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명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훌륭한 안내자가 되었다. 샤미나드 신부는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신뢰하며 기도할 것을 권고하신다.



로사리오의 성모님 (익명)

10월에 기억해야 할 축일 : 2일 마리아수도회 창립 기념일(1817년)

9일 마리아니스트 세계 기도의 날 (기둥의 성모 성당- 사라고사)

12일 기둥의 성모 축일

Sr. Dominique Saunier, FMI